

서학개미, 美 상장 한국 3배 ETF에 몰린다...2억달러 베팅

해외주식 Click

강달러 기조에 환차익 가능성 기대
국내 3배 ETF 없어 美증시 투자
"위험성 커 신중한 투자" 당부

3대 직장인 김모씨는 미국에 상장된 한국 지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인 '디렉시온 데일리 MSCI 사우스코리아 볼 3X 셰어즈(KORU)'에 금융자산의 절반을 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구글 관련주를 모아놓은 ETF에 투자했다. 김씨는 "국내 증시 투자하는 효과도 있고, 동시에 환차익과 레버리지 효과까지 기대돼 투자하게 됐다"고 했다.

국내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서학개미(해외 증시 투자자) 자금 일부가 한국 상품으로 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 구멍 때문에 고수익을 원하는 서학 개미들이 점점 더 해외 초고위험 ETF로 몰려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ChatGPT로 생성한 '레버리지 상품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이미지.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2주간(2월 24일~3월 9일) 서학개미들은 한국 주식시장 성과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코루(KORU, DIRECTION SHARES ETF TRUST DAILY MSCI SOUTH KOREA BULL.)'를

약 2억3990만달러 순매수했다. 이는 같은 기간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규모다. 대내외 리스크로 인한 강달러 기조와 높은 레버리지 활용 매력이 부각되면서 해외 증시에서 국장에 투자한 것으로 보여진다. 서학개미들은 한국 증시를 1

배로 추종하는 'EWY(iShares MSCI South Korea ETF)'도 3846만달러 담았다.

국내에는 코스피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없는 만큼, 보다 높은 수익률을 노린 개인 투자자 자금이 미국 상장 상품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초고위험 ETF'의 경우 제도적으로 국내 출시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해외 주식 ETF의 경우 레버리지 배율 2배 이내만 출시할 수 있다. 또 '단일 종목 30% 비율 제한' 규정에 따라 채권 등 10개 이상의 기초 자산을 섞은 혼합형 상품만 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이 구조적으로 위험성이 큰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 강화와 더불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구조로, 수익뿐 아니라 손실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일일 재조정 효과로 인해 실제 지수보다 손실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한수 연구위원의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특성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학 개미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 상위 50종목 보관액 대비 초고위험 ETF 보관액 비율은 2020년 1%에서 2021년 4%, 2022년 10%, 2023년 13%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는 12%다. 이 보고서는 초고위험 ETF를 3배 레버리지,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비트코인 관련 ETF로 집계했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일일 목표 배율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당일 수익률 방향과 같은 방향의 기계적 매매 압력이 반복될 수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도입되든지, 기초자산 시장 미시구조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금감원, 고위험 금융상품 전 과정 살핀다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사전예방 투자자보호 중심 체질 개선
주요 과제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 제시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업계 감독 방향을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 관계자 약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서재만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해 업계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내외 금

용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가 상품의 위험을 투자자 관점에서 충분히 평가하고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심사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상품 기획과 제조, 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해 불안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국민성장펀드와 BDC 등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조각투자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등 새로운 시장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

회사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여해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회사들이 사후 책임 부담 때문에 모험자본 투자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혁신기업과 성장 산업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을 통한 자금 조달 확대에 대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감축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동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검사'도 확대한다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국민성장펀드 손실 금융사 임직원 면책

금융위, 첨단·벤처 투자 확대 유도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책 펀드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부담을 줄여 금융권 자금을 첨단 산업과 벤처, 지역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 및 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면제된다.

면책 특례는 국민성장펀드 직접 투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 첨단 전략 산업 인프라 투자·융자, 저리 공동대출 등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전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권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금융사들이 생산적 금융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책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 역시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손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면책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정윤 기자

이찬진 "중동발 변동성... 시장 안정 총력"

(금감원장)

신용거래 투자 위험 안내 강화

금융감독원이 중동 정세 악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0일 스위스 바젤 출장 중 현지에서 서울 본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중동 상황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전 부서가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원내 '중동 상황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금융시장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투자자들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용거래 관련 투자 위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대매매 가능성 등 투자 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증권업계가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개인 투자자 투자 현황도 모니터링한다.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유의 사항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주식 관련 인플루언서가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리딩방을 통한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정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美배당 다우존스 ETF 순자산 3조 돌파

미래에셋증권, 연초이후 14.58% 성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순자산이 3조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순자산 증가액은 802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순자산 규모는 3조 379억원으로 국내 상장 미국 배당주 ETF 가운데 규모 1위다.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

하는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우량 배당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개인 순매수 금액은 연초 이후 2,572억원을 기록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 기업 펀더멘털과 에너지, 필수소비재 등 경기 방어 섹터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연초 이후 14.58%의 성과를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